

“광복 70년, 만해 정신 드높이는 계기로”

미리보는 2015 만해축전

8월 11~14일 인제 일대서 열려
‘평화·통일’ 모색 행사 다채로워
미술캠프·청년만해학교 등 눈길
무산 스님 업적 고찰 세미나 개최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기리는 2015 만해축전이 8월 11~14일 인제 백담사와 만해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해방 70년 분단 70년, 민족문학의 역경’을 주제로 청년만해학교, 시낭송콘서트, 학술세미나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먼저 개막 전날인 11일에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첼비오케스트라’와 시낭송콘서트, 유심작품상 시상식이 만해마을 남의침목 광장에서 펼쳐진다. 시낭송콘서트에는 정완영, 홍성란 등 국내 대표시조시인들이 대거 참가한다.

또 만해연구소가 ‘만해 한운은, 전통과 근대’ 학술세미나를, 창작21작가회가 ‘해방70년 분단70년 민족문학의 역경’ 세미나를 연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내용으로

2015년 8월 만해축전 행사일정

날짜	시간	행사명	행사장소
4~10일		청소년 음악캠프	만해마을 설악관, 금강관
11일	14:00~17:00	만해 한운은, 전통과 근대 그리고 탈근대	만해마을 설악관 강당
11일	14:00~17:00	해방70년 분단70년 민족문학의 역경	만해마을 문인의집 강당
11일	18:30~19:00	제13회 유심작품상 시상식	만해마을 남의침목 광장
11일	19:00~20:00	첼비오케스트라 공연	만해마을 남의침목 광장
11~13일	19:00~21:00	대동제, 인제문화예술인의 밤	남면 실내체육관, 하늘내린센터
12일	09:00~12:00	사실시조의 위상과 현대적 계승	만해마을 문인의집 강당
12일	09:00~12:00	평화 시낭송회	만해마을 설악관 강당
12일	09:30~21:00	전국 고교생 백일장	인제 실내체육관
12일	13:00~	현대 불교시인 연구	만해마을 설악관 강당
12일	14:00~16:00	제19회 만해대상 시상식	인제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
12~14일	14:00~	청년만해학교	만해마을 세미나실
12~14일		어린이 미술캠프	만해마을 일원
12~16일	13:00~	남의침목 서예대전	인제 하늘내린센터 전시실
13일	09:00~17:00	설악 큰스님 (만해축전 창립 고별 심포지엄)	만해마을 문인의집 강당
13일	10:00~	남의침목 전국 백일장	만해마을 남의침목 광장
13일	15:00~18:30	21세기 한국 시문학의 가능성	만해마을 설악관 강당
14일	10:00~12:00	설악·금강 테마 공연	만해마을 문인의집 강당
28일	13:00~18:00	불교와 내셔널리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

준비되고 있다.

이번 만해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만해대상 시상식’은 8월 12일 오후 2시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만해대상은 평화대상에 미국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더튼 교수가, 실천대상에 히말라야 빈민구제활동가 정전 스님, 발달장애인 공동체 무지개공동회(대표 천노엘), 문예대상에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가야금명인 황병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령중시

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같은 시각 인제하늘내린센터에서는 남의침목서예대전도 마련된다. 또 만해마을 설악관에서는 평화시낭송회와 현대불교시인연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만해축전에서는 그동안 만해축전을 창립한 이후 몸살양염으로 후회해 온 설악 무산 스님의 업적을 고찰하는 행사도 마련된다. ‘시와세계’가 13일 만해마을 문인의집 강당에서 여는 ‘설악 큰스님 만해축

전 창립 고별 심포지엄’이 그것이다. 설악 무산 스님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를 설립해 그동안 만해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조시인으로 문단의 어른이기도 하다. 스님은 2014년 동국대에 만해마을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은 한국시인협회 주관으로 ‘21세기 한국 시문학의 가능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 이번 만해축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있다. 8월 12일 인제실내체육관에서는 전국고교생 백일장 대회가 열리며 12일부터 14일까지 만해마을 일대에서는 어린이 7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미술캠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만해학교가 마련된다.

또 8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만해마을 설악관에서 음악학교도 열리며 만해아트 페스티벌도 진행된다.

만해축전은 8월14일 오전 10시 남의침목 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해스님 서거 71주기 추모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와 함께 9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만해축전 기간동안 성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야구한마당 행사와 게이트볼 대회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올해 연등회도 수고하셨습니다”

연등회보존위, 7월 27일 공로 단체 시상식

한마음선원 청년회 정진상

올해 연등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는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연등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총 20개 단체에 대한 정진상, 보현상, 원력상 시상을 비롯해 개인표창 5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정진상은 한마음선원 청년회, 화계사 불교대학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보현상은 천태종 마야행렬팀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수상했다. 또 서대문 조계종 사찰들의 연등회 참여와 준비를 선도한 옥천암을 비롯한 6개 단체에는 원력상을 받았다.

아울러 아기부처님을 모시는 전통등 행렬을 위해 노력한 연화공덕 장엄회 김명진, 김선조 씨를 비롯한 5명의 개인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



7월 27일 열린 2015 연등회 시상식에서 한마음선원 청년회를 대표해 참가한 조주리(금천교2양이) 정진상을 수상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헤일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계 전체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기간은 모두가 환희심을 느낄 정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연등회가 무형유산상을 넘어 세계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협 ‘네팔 돕기’ 동행 통해 지원

23일 이사회서... 총 1억5000만원 모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네팔 구호성금이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재건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7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불기2559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네팔구호성금 처리 방안을 논의, 이 같이 결의했다.

종단협 네팔 구호성금은 천태종 1억 원을 비롯해 총 13개 종단이 1억5615만3000원을 모연했다. 종단협은 이 성금을 그동안 20억 원 정도를 모연해 네팔 사찰·교육시설 재건을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오는 9월 13~17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교류대회는 14일 △한인회생자 위원회 △3국 교류위원회의, 15일 △세계평화 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회 △축하만찬, 16·17일 성지순례 등 총 4박5일간 진행된다.

또한 지난 이사회에서 관음종이 상임이사 사중단에서 부회장중단으로 승격하면서 상임이사 1인 추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이 상임이사로 선임됐다. 기존 이사중단이 상임이사중단으로 승격될 때 발원기금을 냈던 전례에 따라 흥파 스님은 3000만원을 종단협에 내겠다고 밝혔다. 흥파 스님은 이날 30여 년간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종단협 감사패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전북불교계, 도심·청년포교에 힘모은다

25일 전북 100인 대중공사... 지역불교계 첫 시행

전북불교계가 전북불교 미래를 위해 1인 1사찰 청년회 창립 및 도심포교전진기지 건립 등 포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공동추진위원장 성우·경우)는 7월 25일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첫 번째 대회의 장을 마련했다.

대중공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일강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만수 선운사 총신도회장 등 120여 명이 동참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열린 이번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입재식에 이어 대중공사 의제 브리핑, 모듬별 토론, 전체정리 및 토론결과 발표, 종합토론 및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대중공사 대중들은 5개 모듬으로 나누어 △대화와 소통 △지역 포교 전략과

정책 △시민사회 영역에서 불교 역할 확대의 3가지 주제로 2시간 동안 토론을 진행했다.

전북불자들은 △사찰과 사찰, 스님과 불자간 유대관계 확대 △어린이·청소년 포교프로그램 확충 △사회문제 참여와 지역봉사 확대 △1인 1사찰 청년회 창립 △도심 포교전진기지 설립 등을 결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결의사항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중국어불교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불자들을 유치해 지역불교를 활성화해야 한다’ ‘스님들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등의 주문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대화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참석자 대부분이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토론회에 앞서서는 금산사 포교교당 지월스님과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이상봉 사무국장의 지역불교 현황 브리핑도 진행됐다.

지월스님은 ‘전북지역 불교포교현황’ 발표에서 “전북지역은 사찰 대다수가 산중



‘전북의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는 7월 25일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첫 번째 대회의 장을 마련했다.

에 자리해 포교활동에 제약이 있다”며 “시군 중심의 도심포교 사찰·포교당 설립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공동집행위원장 덕산 스님은 “지역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며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전북 교구본사에 전달해 중무행정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중공사에 참여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정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중이 한국불교 도약을 위한 저력을 발휘해달라”며 “지역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중이 모인 최초의 법석에 많은 불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종단도 적극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전북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9월 12일 고창 선운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폭70주기 맞아 ‘비핵 대회’ 열린다

합천평화의집, 8월 5일 개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투하 70주기를 맞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고양하기 위한 장이 마련된다.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8월 5일 경남 합천 황강변 야외공연장에서 ‘2015 합천 비핵·평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비핵·평화 영화상 영회 △비핵·평화 난장 △비핵·평화 한

마당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이튿날인 8월 6일에는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에서 1945년 8월 6일과 9월 9일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도 열린다.

평화의집 운영위원장 연암 스님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무관심은 여전히 있다”며 “19대 국회는 반드시 원폭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제정해 원폭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익률 기자

법화신행 믿음
일우 저/신국판/344쪽/값 15,000원

생태문제에 종교가 답하다
종교인대화모임/신국판/504쪽/값 23,000원

행복 찾는 시간
혜원 저/신국판/264쪽/값 15,000원

죽음이란 무엇인가
강승환 저/신국판변형/232쪽/값 10,000원

한권으로 읽는 불교 이야기
성기용 저/신국판/352쪽/값 15,000원

화두를 타파한 선사는 왜 염불을 주창했는가!

철오선사 염불송
허만항 편역/신국판/328쪽/값 15,000원

참선으로 깨치기 힘들면 과감히 염불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하여 불도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한 임제의 36대손 철오선사의 염불 계승!
염불법문이 어떻게 주요 불교 종파의 핵심 교리를 담아내고 있는지, 염불수행의 공덕과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법화신행 믿음
일우 저/신국판/344쪽/값 15,000원

불교TV<부다의 길을 가다>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 일깨워 온 일우 스님의 법화경 법문!

생태문제에 종교가 답하다
종교인대화모임/신국판/504쪽/값 23,000원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과제인 환경 및 생태문제에 대해 주요 종교의 신앙인이자 학자들이 10여년간 진행한 대화와 토론을 생생하게 정리.

행복 찾는 시간
혜원 저/신국판/264쪽/값 15,000원

『신심명』을 모티브로 하여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책. 마음의 실체를 깨닫기 위한 가르침과, 현실 속에서의 구체적인 상담 사례들을 실고 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강승환 저/신국판변형/232쪽/값 10,000원

죽음이란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교에서 바라본 죽음과 삶의 문제를 마치 이야기하듯 들려준다.

한권으로 읽는 불교 이야기
성기용 저/신국판/352쪽/값 15,000원

부처님의 생애부터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사상 체계, 불교 역사와 불교경전, 대중불교와 생활규범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

가사체 한글 금강경과 교감본 한문 금강경
무비·조현춘 공역/사륙배판/144쪽/값 12,000원

무비 스님과 조현춘 교수가 한글세대를 위해 함께 번역하고, 이를 독송하기 좋게 4×4조의 가사체로 편집!
금강경에 관한 각종 판본들을 비교 분석하여 조계종 표준본의 약 500여자에 달하는 한자를 수정 보완, 금강경의 원뜻을 정확하게 살렸다.

가사체 한글 금강경과 교감본 한문 금강경
무비·조현춘 공역/사륙배판/144쪽/값 1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books